

형통한 자 요셉

창세기 39:1-6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열한 형제보다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주목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형통’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번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그 때’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꿈을 꾸며 희망에 부푼 삶을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 남의 집에 종이 되었을 바로 그 때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될 때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등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본문 1 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끌려”라는 단어는 손발을 묶어서 데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이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암담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그 자신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가 당한 이 모든 것이 애굽 나라의 총리자리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다면 13년이 아니라 1 백년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나이 30 세에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지만 요셉이 그것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가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통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계획대로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알아야 합니다. 2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상황과 어려움은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어릴 때 일찍 어머니를 잃고, 환경이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에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절 받는 꿈을 꾸는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 이외엔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한 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시 한 순간도 요셉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교회를 들어서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난 한 주간 동안 속상하는 일이 있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3-4 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에 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노예였고 다른 노예들처럼 갖은 어려운 일들은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가정총무가 되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살았기에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 자녀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회입니다. 어려운 이를 돕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 싸우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예배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이것이 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계적인 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은퇴를 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할 때 전 세계의 눈이 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쉬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쉬브는 원래 그 회사에 정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청소뿐 아니라 공장 안까지도 말끔히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과 근면이 눈에 띄어 그는 청소부에서 정식 직공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무원으로 승진되었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는 카네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쉬브가 후계자로 지명을 받자, 그는 카네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이 회사에는 전문 경영인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 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고용하면 되네. 그러나 자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카네기가 너무 잘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누가 후계자에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카네기는 쉬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의해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5 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 여기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위사람이 함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북한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목말라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